

대전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의 모색

광역시 승격 20주년에 즈음하여

최효철 대전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1. 서론

올해로 시 출범 60주년, 광역시 승격 20주년을 맞는 대전은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한 광역교통의 거점으로서, 또한 대덕연구단지로 상징되는 첨단 과학기술의 본산으로서의 위상을 확실히 하면서 2009년 제60회 세계우주대회의 개최를 준비하는 등 국제적 과학도시로의 비상을 꿈꾸고 있다.

그런데 시 출범 60년과 광역시 승격 이후 지난 20년간의 대전 지역경제를 되돌아보면 지금까지의 성장이 대체로 외생적 계기, 즉, 중앙정부의 호의적 정책 결정에 크게 의존한 것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대덕연구단지의 대전 설치, 대전엑스포 개최, 정부대전청사의 설치 등이 그 좋은 예이다. 그러나 그 동안 우리 지역경제는 이러한 외생적 발전 계기를 내재적 성장잠재력으로 전환시키는 데 소홀하였다. 내생적 성장동력을 갖추지 못한 채 외생적 계기에만 의존해서는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실제 대전의 지역경제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외생적 개발수요가 소진되면서 상대적인 침체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그 동안 대전경제의 경쟁력의 원천이라고 여겨져 왔던 두 가지 동인 즉, 교통과 과학기술의 발전이 역설적으로 지역경제의 침체를 부채질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고속철도 등 육상교통수단의 획기적 발전과 전자상거래의 확산에 따라 유통,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시장의 광역화와 수도권에의 의존이 심화되었으며 이는

전통적 유통, 소비도시였던 대전의 지역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대덕연구단지 역시 초기 인프라 구축기와는 달리 성숙기에 접어든 지금은 지역경제에의 기여도가 크다고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는 대덕연구단지가 국가혁신역량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산업생산과의 연계성은 여전히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미래 대전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육성해야 할 때이다. 아직도 로봇랜드 등 이미 결정된 국책사업의 지역 내 유치 실패를 아쉬워하면서 첨단의료복합단지와 같은 향후의 대규모 국책사업 유치에 목을 매는 시각이 없지 않다. 그러나 우리 지역의 역량에 기초한 내생적 성장동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이러한 국책사업의 유치조차도 쉽지 않다는 사실이 이미 증명되었다.

신성장동력은 우리 지역경제의 역량에 대한 철저한 분석에 의해 준비되어야 하겠지만 결국은 대전의 전통적 강점 즉, 인적, 물적 자원 이동의 허브로서의 이점과 첨단과학기술 인프라와 전문인력의 집적지로서의 이점을 다시 활용하는 것에서 찾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대전의 산업구조를 이 신성장동력을 중심으로 재편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대전경제의 현황

2-1 지역내총생산

1989년 광역시 출범 당시 대전의 지역내총생산(GRDP)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49% 였으나 1994년 이후 감소 및 정체추세로 전환하여 2007년에는 2.17%로 위축되었다. <그림 1>에서 보듯이 최근 들어 이러한 상대적 침체는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1989년 373만원(경상가격 기준)으로 15개 시도(울산광역시 분리 이전) 중 6위를 차지했던 1인당소득도 2007년에는 1,385만원으로 16개 시도 중 대구에 이어 15위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대전과 분리된 충남이 제조업을 선도산업으로 해서 고속 성장을 달성함으로써 광역시 분리 직후 충남의 52.7%에 달했던 대전의 경제규모가 2007년에는 36.3%로 위축되기에 이르렀다.

그림 1 대전 지역내총생산의 전국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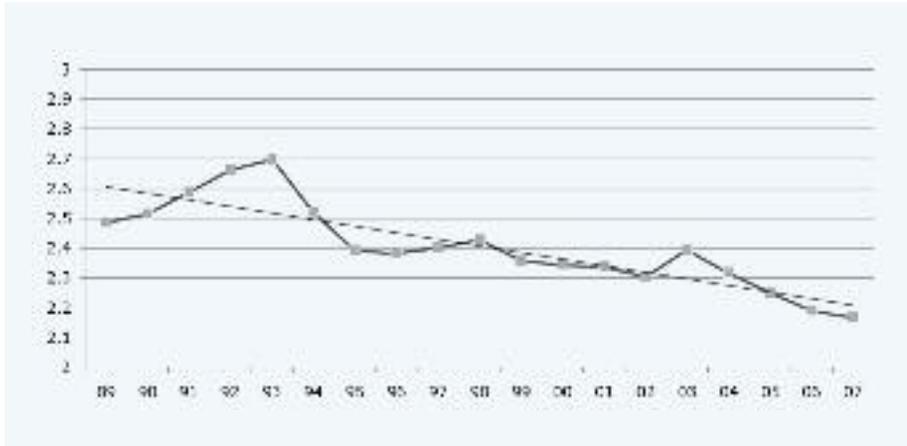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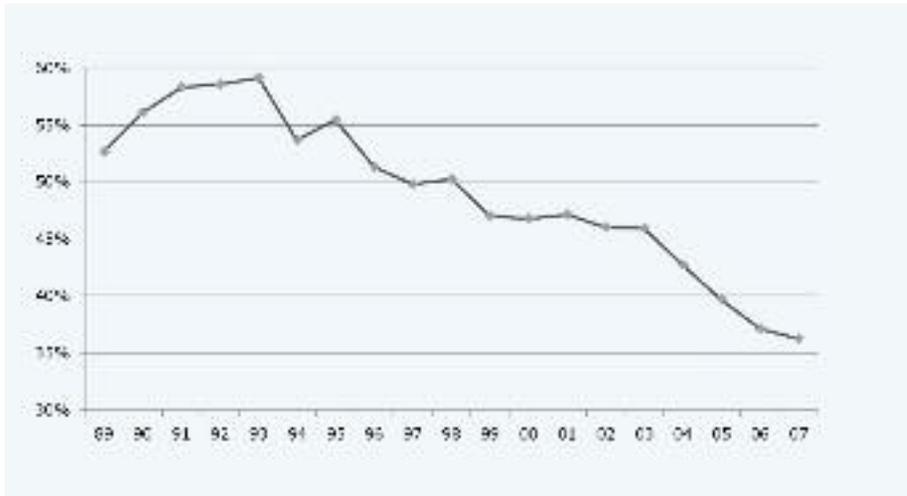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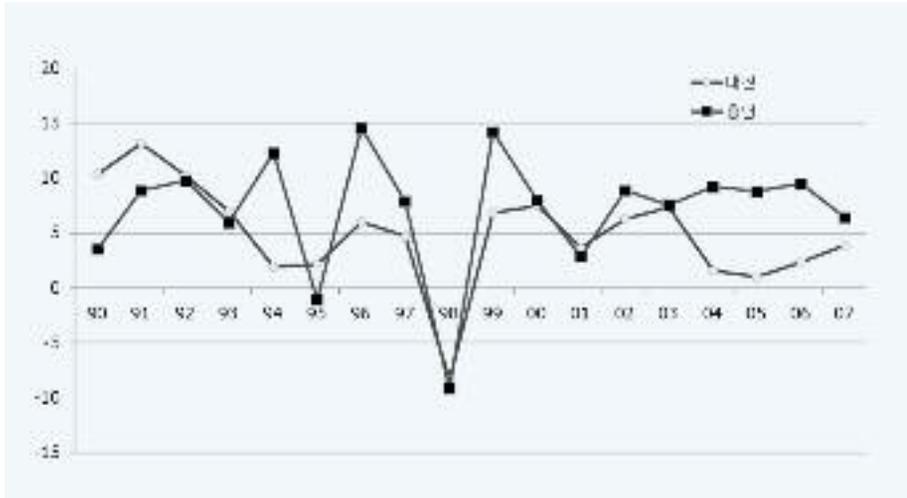


그림 2 대전과 충남의 지역내총생산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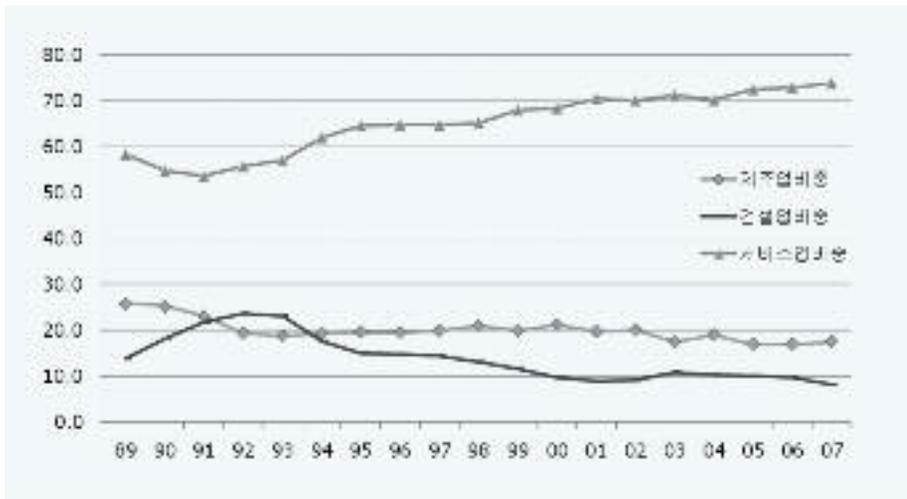
경제규모의 이러한 위축은 물론 낮은 경제성장률의 결과이다. 대전경제는 광역시 출범 이후인 1989년에서 2007년까지의 기간 동안 연평균 4.75%의 경제성장률(실질 GRDP성장률)을 기록했다. 이는 상대적으로 고성장 추이를 보이고 있는 인근 충남의 6.95%는 물론 전국 평균인 5.56%보다 낮은 수치이다:

그림 3 대전·충남 지역경제의 성장률 추이



2-2 대전의 산업구조

그림 4 대전의 산업구조(생산액 기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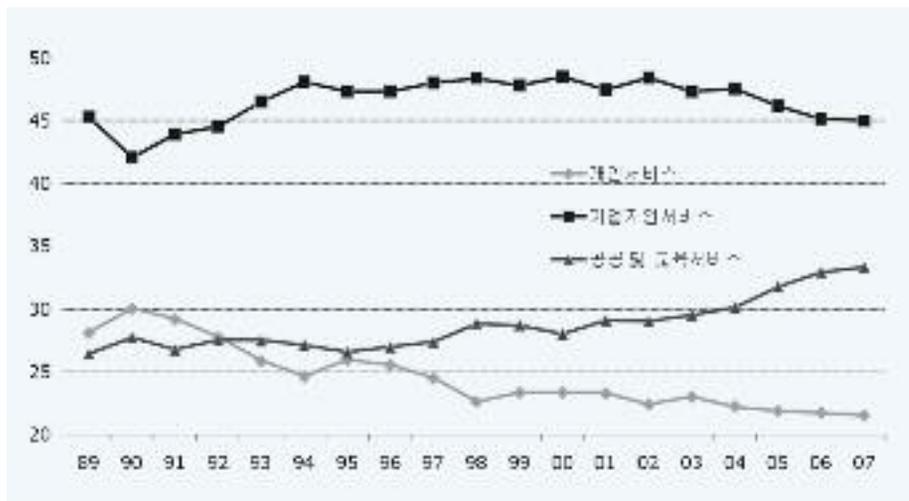


생산액 기준으로 대전의 산업구조를 살펴보면 서비스업의 비중이 2007년 현재 74.0%, 제조업이 17.6%, 건설업이 8.2%로 나타나고 있다(〈그림 4〉). 서비스업의 비중은 1989년 58.5%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제조업의 비중은 1989년 25.8%에서 지

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특히 건설업은 전체 산업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94년 이후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다. (1993년 93년 23.0% ⇒ 2007년 8.2%)

서비스산업의 구성비는 운수업, 금융업, 사업서비스업 등 기업지원서비스업의 비중이 45.0% (생산액기준, 2007년)로 가장 높다. 그러나 기업지원서비스업의 비중은 1994년 이후 정체를 보이다가 최근 하락하고 있다.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수리업으로 구성되는 개인서비스업이 전체 서비스업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89년 28.2%에서 2007년에는 21.7%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공공 및 사회복지서비스, 교육서비스업의 생산액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림 5 대전 서비스산업의 구성비 추이 (생산액 기준)



3. 대전경제의 성장동인-과거와 현재

3-1 외생적 요인에 의한 지역경제의 성장

대전은 지리적으로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한 광역교통의 중심지이자 대덕연구단지 로 상징되는 첨단과학기술의 본산이다. 1993년의 대전엑스포 개최, 1998년 정부대전청사 건립, 최근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립 계획 등 그 동안 대전경제 발전의 동인이 되었던 몇 가지 외생적 계기들도 대전이 갖는 이러한 특성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

표 1 대전광역시 20년, 주요 발전계기

연도	발전계기
1989	광역시(직할시) 승격
1991-1996	둔산 신시가지 개발
1992	대덕연구단지 개발 완료
1993	대전엑스포 개최
1995	지방자치제 시행 (민선시장)
1997-1998	정부대전청사 설립 및 이전
1999	대전광역시청 둔산 이전
2004	KTX 개통
2005	대덕연구개발특구 육성 특별법 시행
2009	시 승격 60주년, 광역시 승격 20주년, 제60차 세계우주대회(IAC) 개최

1990년대 초 엑스포개최에 따른 도시기반시설의 확충, 대덕연구단지 및 둔산 신시가지 개발 등 개발수요에 따른 건설업의 호황과 대덕연구단지, 정부대전청사를 배경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 기업지원서비스산업 등 서비스산업의 급성장이 대전지역 경제의 성장을 견인하였다. 그러나 1994년 이후 개발수요가 소진되는 한편으로 내생적 성장동력 발굴에는 실패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성장세도 둔화 내지는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

3-2 대전경제의 성장동력 약화

그 동안 대전경제의 경쟁력의 원천으로 간주되어왔던 교통중심지 기능과 대덕연구단지의 지역경제 성장견인력은 최근 뚜렷이 약화되었다. 고속철도 등 육상교통수단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의해 시장의 광역화와 수도권 의존이 더욱 심화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며 전통적으로 생산과 소비 모두에서 타 지역과의 상호의존관계가 높은 개방형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는 대전경제는 소위 빨대효과(straw effect)에 의한 소비와 소득의 역외유출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박종찬, 2008)

대덕연구단지 역시 초기 인프라구축기와 달리 성숙기에 접어든 이후에는 지역산업과의 연계성 결여라는 한계를 여전히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타 시도의 경쟁적인 R&D클러스터 및 첨단산업 육성전략에 따라 대덕연구단지가 가지고 있던 과학기술기반으로서의 독점적 지위도 약화되었다. 대덕연구단지의 존재 자체만으로는 더 이상 지역경제의 발전을 견인할 수 없다는 사실은 최근 자기부상열차, 로봇랜드 등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일련의 국책사업의 유치에 실패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4. 대전경제 신성장동력의 모색

미래 대전의 새로운 성장동력은 우리 지역경제의 역량 - 강점과 약점, 기회와 위협 요인 등 - 에 대한 철저한 분석에 의해 준비되어야한다. 첨단의료복합단지과 같은 대규모 국책사업 유치는 지역경제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지역의 역량에 기초한 내생적 성장동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이러한 국책사업의 유치조차도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유치에 성공하더라도 지속적인 지역경제성장의 동인이 될 수 없다.

4-1 중앙정부가 선정한 신성장동력

정부는 2009년 1월 3대분야 17개 신성장동력을 선정 발표한 바 있다. 이 17개 신성장동력 중 대전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분야를 선정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원과 육성책을 모색하는 것도 지역경제의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신재생에너지, IT융합시스템, 바이오제약 · 의료기기, 글로벌 헬스케어, 글로벌 교육서비스, MICE 융합관광 등이 적극적인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진다. 특히 이들 분야가 첨단의료복합단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등 현재 추진 중인 국책산업의유치와 연계될 때 그 효과는 극대화 될 수 있을 것이다.

표 2 신성장동력

3대 분야	17개 신성장동력
○ 녹색기술산업(6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재생에너지 ○ 고도 물처리 산업 ○ 그린수송시스템 ○ 탄소저감에너지 ○ LED응용 ○ 첨단그린도시
○ 첨단융합산업(6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통신융합산업 ○ 로봇응용 ○ 바이오제약 · 의료기기 ○ IT융합시스템 ○ 신소재 · 나노융합 ○ 고부가식품산업
○ 고부가서비스산업(5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헬스케어 ○ 녹색금융 ○ MICE 융합관광 ○ 글로벌교육서비스 ○ 콘텐츠 · 소프트웨어

4-2 대전경제의 SWOT분석

지역경제의 역량에 기초한 신성장동력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역경제의 강점, 약점, 기회요인과 위협요인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대전경제의 SWOT 분석은 많이 있지만 (박종찬, 2008 등) 대체로 <그림 6>에 나타난 내용 정도로 정리할 수 있다.

그림 6 대전경제의 SWOT 분석



4-3 대전경제의 신성장동력 모색

비록 최근 대전경제가 이들 요인의 효과적 활용에 성공적이지 못했다고는 하나 대전의 경쟁력의 가장 큰 원천이 뛰어난 광역접근성과 과학기술 역량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이들 강점과 새로운 기회요인을 활용하면서 드러난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신성장동력을 발굴해서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대전의 산업구조를 이들 신성장동력에 기초하여 중·장기적으로 재편해나가야 할 것이다. 필자는 국방산업, 연구개발서비스업, 의료서비스산업, MICE산업 등이 지역의 역량에 부합하는 대전의 신성장동력으로 검토해 볼 만한 분야라고 생각한다.

1) 국방산업(Defense Industry Base)

국방산업은 무기체계의 고도화와 함께 향후 성장 전망이 매우 큰 산업이다. 대전은 국방과학연구소, 기계연구원 등 국방 R&D의 메카일 뿐 아니라, 3군 본부, 교육사령부(군 소요 제기와 시험 주관), 군수사령부(군수자원 종합관리)가 역내 혹은 인근에 위치한 DIB 최적의 입지라 할 수 있다. 대전의 연구개발 역량을 기반으로 하고 충남 인접 지역(연기,논산,계룡 등)을 생산단지로 포괄하는 DIB클러스터의 형성은 정부의 광역경제권 구상과도 부합된다.

2) 연구개발서비스업

자체적으로 연구개발 역량을 갖춘 일부 대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업은 신상품 개발,신공정 개발, 새로운 디자인 개발 등 연구개발 업무를 아웃소싱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따라서 연구개발서비스업 역시 성장가능성이 매우 큰 산업이면서 고부가가치 산업이기도 하다. 연구개발서비스업은 기본적으로 대규모 연구기관이나 연구중심대학에서 spin-off되는 속성을 가지며 인프라지향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거의 모든 과학 분야의 연구기관이 이미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는 대전은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최적 입지이다.

3) 의료서비스 산업

헬스케어, 개호서비스 등 의료서비스산업은 고령화와 소가족화의 진전, 소득수준의 향상 등과 함께 빠른 성장이 예상되는 산업이다. 대전은 우수한 의료품질을 갖춘 3차 진료기관급의 병원과 한방병원이라는 인프라와 함께 전국적으로 알려진 접근성이 뛰어난 온천휴양지를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기관 간 기능 연계 및 특성화(동서의학 결합 등), 의료와 휴양의 결합 등을 통해 의료서비스산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여지가 매우 크다. 특히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유치와 연계될 수 있다면 그 성과는 더욱 커질 것이다.

4) MICE산업

교통의 중심지로서 뛰어난 광역접근성을 가진 대도시이면서도 유성온천, 국립공원 계룡산, 덕유산, 무주리조트 등 풍부한 관광자원이 인접하고 있는 지리적 이점은 대전이 최근 국내외 주요도시들이 경쟁적으로 육성하고자하는 ‘회의, 포상휴가, 전시, 컨벤션 산업’ 즉, MICE(Meetings, Incentives, Conventions and Exhibitions)산업의 최적입지가 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하고 있다. MICE산업 역시 성장가능성이 큰 고부가치서비스 산업이다.

5. 맺음말

지금까지의 대전발전의 주요 계기는 중앙정부에 의해 외생적으로 주어진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도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건립, 첨단의료복합단지 건립 등 대전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외생적 변수가 상존하고 있다. 그러나 대전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더 이상 중앙정부의 호의적 정책결정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지역의 자체 역량에 기초한 내생적 발전 동인이 요구된다. 대전의 전통적 강점인 교통과 과학기술의 중심지로서의 이점을 지역경제의 장기적 성장동력으로 내재화시키기 위해서는 대덕연구단지의 국가 R&D 기능과 지역경제의 조화, 연구기관 간 기술융합, 산학연관 연계 지원, 지자체간의 전략산업 중복 조정 등을 주도할 수 있도록 대전시의 전문적 역량이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대전광역시, 대전 신경제발전 5개년 계획:2003-2007, 2002

대전광역시, 대전 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2005-2009, 2004

대전광역시, 대전비전 2020, 2004

박종찬, “광역경제권정책에서 대전·충남지역발전전략: 대전충남지역 경제의 장기적 성장잠재력 확충방안”, 한국은행 대전충남지역본부 지역경제세미나, 2008